



## 2019년 8월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 AYP 프로그램 참가자 공개모집



한국4-H본부는 1년간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8월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 AYP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4-H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States' 4-H International과 한국4-H본부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1년간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초청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국제적 견문과 영어를 익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 자립심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뚜렷한 의지를 지닌 청소년들의 도전,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한 국 4 - H 본 부 회



### 2019년 8월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AYP 프로그램 참가안내

(States' 4-H Academic Year Program / 한국4-H본부)

#### 1.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요(이하 AYP)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미국 교육과정 참여 및 미국 초청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익히고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

가. 파견기간 : 2019년 7월 말 ~ 2020년 6월 말(1년)

나. 모집기간 : 2018년 3월 ~ 10월마감

다. 참가대상 : 만15~18세(2019. 8.1 기준)로 J-1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 선발기준 : ELTis영어테스트 265점 만점 기준 215점 이상으로 영어인터뷰 합격자

최근 3년 동안의 성적 “C” 이상

글로벌 마인드를 익히고 성실히 생활하려는 의지있는 청소년

라. 참가비 : 15백만원(항공료, 개인생활비, 비자신청비 등은 별도)

단, S4-H 여름 단기 미국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100만원 할인

<참가비 포함내역>

○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ELTis 테스트 등 수속지원, 현지 오리엔테이션, 초청가정 및 학교 선정, 현지 프로그램 진행 중 모니터링 및 지원, 중간 평가회, 보험료 등

## 2. 시행기관

○ 미국 : States' 4-H International (S4-H)

- 20개 국가와 매년 1천명씩 청소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4-H의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공식시행기관

- S4-H홈페이지 : [www.states4hexchange.org](http://www.states4hexchange.org)

### ※ 미국 4-H Youth Development Program이란?

미국4-H는 110년전에 시작되어 미 농무부(USDA)와 50개주의 주립대학에 있는 4-H센터에서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청소년전문가들에 의해 육성되는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이자 청소년학습단체로서 5~19세까지 6백만명의 청소년회원을 가진 미국 최대의 청소년단체이다.

4-H는 Head, Heart, Hands, Health의 4개의 H를 뜻하며, 실천으로 배우자(learning by doing)를 모토로 하는 실천적 경험학습을 중요시하는 청소년단체이자 학습활동이다.

- 미국4-H홈페이지 : <http://4-h.org/>

○ 한국 : 한국4-H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소재)

- 법률 제8758호 한국4-H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거한 4-H활동주관단체로서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단체(현재 2,000여개 학교, 7만명의 청소년 회원)

- 4-H홈페이지 : [www.korea4-h.or.kr](http://www.korea4-h.or.kr)

- S4-H 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 블로그 : <http://blog.naver.com/s4hexchange>

- S4-H 미국파견 프로그램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s4hinternational>

### 3. 참가자 선발 및 준비사항

#### 가. 참가자 선발절차

참가신청자 및 학부모	한국4-H본부	S4-H
신청서 작성 추천서 획득 메디컬 테스트 준비	참가안내, ELTiS 실시 참가자의 참가동기 및 적합성 평가 인터뷰	최종면접(Skype) 지원서 검토 최종참가자 선정

- 2018. 3 : 참가자 모집 (현재 중2~고2 신청 가능. 미국 파견당시 만15~18세)
- 2018. 8 : 지원서 제출(간단한 지원서 양식 및 외국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이유에 대한 영한 에세이)
- 2018. 9 : 1차 ELTiS 실시
  - ※ ELTiS 테스트는 한국4-H본부에 와서 실시합니다.
- 2018. 11 : 2차 ELTiS 실시(ELTiS, 영한인터뷰, Staff과 지원자들이 함께하는 소그룹 인터뷰)
- 2018. 12 : 미국 S4-H Staff 온라인 인터뷰, 참가자 최종선정
- 2019. 1월 3째주 : 한국4-H 지원서 제출(의료기록 포함)
- 2019. 3 : 한국4-H본부 주관 1차 오리엔테이션
- 2019. 4월말~5월초 : 2박 3일 다른 가정에서 지내기
  - ⇒ 오리엔테이션과 출국전 교육을 통해 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할 참가자들이 그룹 또는 개인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미리 체험토록 함
- 2019. 5 : 미국대사관에 J-1비자 발급 신청
- 2019. 6 : 한국4-H본부 주관 출국전 사전교육 실시. 현지스케줄 리뷰 및 기대효과, 행동규칙 설명, 질의응답 등
- 2019. 7월말 : 미국 시애틀로 출국, 미국 현지 오리엔테이션 실시

#### 나. 성공적인 참가를 위한 준비(요구)사항

- 효율적인 영어구사능력
- 유연성, 적응력, 자존감, 도전정신, 오픈 마인드, 회복능력 등

※ 참가자가 가져야할 태도

- 초청가정의 일원으로서 초청가정의 활동과 생활에 기꺼이 참여해야 함
- 새로운 경험에 대해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
-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미국 문화를 배울 것
- 현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 반드시 최소 C학점을 유지해야 함

다. 추진 기관 준비사항

- 한국4-H본부 : 출국전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및 미국 현지부모와의 정보공유
- 미국 S4-H : 현지 도착 오리엔테이션(초청가정으로 떠나기 전)
  - 기간 및 장소 : 4일, 시애틀
  - 내용 : 기대효과를 구체화하고 1년 동안 지내기 위한 준비, 초청가정에서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준비를 돕는 교육워크숍 추진

4. 현지 생활 주요사항

가. 초청가정

- 초청가정은 참가자에 대해 알기 원하며, 미국 문화를 소개해주기 원함. 대부분의 AYP초청가정은 S4-H 초청가정을 통해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을 초청했던 가정
- 초청가정은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음(인종, 전통,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초청가정에는 유아, 십대 청소년 등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으며, 자녀 없이 혼자 지내는 성인의 가정은 사전에 심층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정임.

나. 현지학교

- 규모 및 일정 : 다양한 고등학교로 배정되며 참가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됨
  - 학기 : 8월말 ~ 익년 6월초
  - 학생 : 평균 300~800명
  - 수업시간 : 월~금 오전 7:30 ~ 오후 3:00
  - 점심시간 : 30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교내식당에서 사먹음
- 수업 : 영어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하며, 몇 가지의 수업은 선택할 수 있음. 최근 참가자들은 드라마, 예술, 요리 수업을 선택해서 들었음.
- 의복 : 교복을 입지 않음. 단정한 옷을 입되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음

- 많은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연구클럽, 운동 동아리, 봉사활동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함.

#### 다. 생활비 : 한 달에 \$150~\$200

- 생필품, 학용품, 활동참가비, 기념품, 옷, 선물 등
- 추가옵션비용 : 무도회 티켓과 무도회복, 현장견학, 졸업앨범, 미식축구 등과 같은 학교스포츠 활동 참가비

### 5.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비용에 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가비 : 약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5백만원은 영어인터뷰 등 참가자 최종확정후 납부 (2018년 12월) 단, S4-H 단기 여름 미국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 한해 100만원 할인 적용</li> <li>- 2차 : 잔액 미화 \$10,000 납부 (2019년 3월)</li> <li>- 참가비 환불규정 : 입금이후 개인사정으로 불참시 참가비의 60%만 환불됨. 단, 2019년 6월 1일부터 출국전기간 중 불참시 참가비의 40%만 환불됨.</li> </ul> </li> <li>○ 왕복항공료 : 실비 별도 부담</li> <li>○ 개인 여권 및 비자발급(J-1) 비용은 별도 부담</li> </ul>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59-17-001690 예금주: 한국4-H본부

※ 사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2배이상의 비용 소요됨

### 6. 참가신청방법

#### 가. 참가자격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① 파견기간(2019년 8월 1일 기준)에 만15세 ~ 만18세의 청소년 (※4-H회원이 아니어도 지원가능함)
- ② 장기간 외국체류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서 낮선 외국 생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강하고 예의바르고 글로벌 인재가 되려는 의지있는 청소년
- ③ 영어테스트 및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선발기준 : ELTis영어테스트 265점 만점 기준 215점 이상으로 영어인터뷰 합격자  
최근 3년 동안의 성적 “C” 이상

#### 나. 지원방법

- 아래와 같이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비(50만원)를 입금한

후 한국4-H본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독립심을 키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 미국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자녀와 부모님이 상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서류

- a.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b.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c. 학교성적표(최근 3년)

☐ 제출처 : 이메일 접수에 한함([bluesky@4-h.or.kr](mailto:bluesky@4-h.or.kr))

# 문의 : 한국4-H본부 교육연구부 김병호 부장 02-440-1635

**다. 파견대상자 선발과정**

- 1차, 2차 ELTiS 테스트 및 영어인터뷰를 통해 최종확정 : 2018년 12월말
- 파견대상자 사전교육 : 추후 안내

## 7. 참고

☐ AYP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 나의 초청가정은 최고였습니다! 가족 모두 재미있었고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들은 1년 동안 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고 정말 고맙습니다.
- 미국 선생님들은 정말 좋았어요. 학교생활은 새로웠고 흥미로웠습니다.
- 엄청난 경험을 했고 나는 이를 통해 성숙해졌습니다.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현지인 처럼 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감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해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 이번 경험은 내 인생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좋지 않은 날도, 울고 싶었던 날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전보다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AYP) 사례



Yelyzaveta in front of her Culture Fair booth at the Annual Conference in New Orleans, 2015.

### First Impressions of Life as a Year-Long Exchange Student

One year ago I was a normal 16 year-old student. The idea of being an exchange student was pretty far from me, I always considered it to be one of those thrilling inaccessible things that can happen in somebody else's life, not mine. But here I am, 8 thousand kilometers away from home, finding my way in a country I've never experienced before.

Every single exchange student in the world has expectations about this experience. Personally, I thought I would live in Florida, walking along the golden beaches, enjoying warm days throughout the year. But guess where I am? Michigan! Tons of snow and pouring rain. Despite this, I'm in love with this state. Somebody once said: "Exchange is not a year in life, it's life in one year" and that's totally true! One of the reasons why I went for it is that I was ready to challenge myself in order to get stronger.

My host family are people whom I will always consider to be my closest American friends and I'd even say my American family. I'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be an elder sister, and experience that feeling when a one year old baby is screaming my name or when I'm riding a tandem with my 10 year-old host sister. What I have learned for sure, is that people will always accept

you if you are open to them, ready to be involved into their lif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how long you have known them,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speak.

Once you have stepped on the path of an exchange student, go and do as much as you can, try new things even if you are 100% sure that it's not in your interest. It's the only way you can squeeze this opportunity till the last drop, because you can never know, what you will learn, whom you will meet and how it will change your life.

Even though my experience just started several months ago, some things have already come to my mind. I'm here, presenting my motherland by myself.

To be honest, this idea makes me feel chilly. And it's the huge responsibility, at least not to shame my country. Especially if you are not very good at cooking but you've recently made some catastrophic Ukrainian dishes for your host family. If you are an exchange student, be prepared to answer patiently lots of funny questions from American people, because that's how they learn about your culture. And never laugh at them, because they probably laugh at you too.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ing I recently understood, is that I now affect people's lives here, too, because I'm now a part of my host family's life and my friends' lives as well. They are also a part of mine and I have limited time to leave a footprint on the sand of their memories. I guess that is a tru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hich can change our world or at least our lives. My story is just a small grain of sand in this system, but that's how dunes are made.

—Yelyzaveta Shchetbakova 2015-2016  
(FLEX/Ukraine/M)

Excerpt from speech presented at States' 4-H Annual Conference in New Orleans, Nov. 2015.



AYP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일본 학생